

2) 칼 라너는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 3장 ‘사랑의 기도’ 항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런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영혼의 사심 없는 황홀한 몰입입니다.”(75쪽) “자기 자신을 잊는 가운데 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보고 스스로 행복해합니다.”(75쪽)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신이 축소됩니다. 자기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평안해집니다. ‘빅뱅’이나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과 비슷합니다. 자기 소멸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를 칼 라너는 ‘몰아적 황홀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말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늘 자기와 자아에 전념하고 그걸 즐기라는 요구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없어지는 영적 황홀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3) 인공지능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사유와 영혼 현상을 뇌의 생리적 작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술과 철학과 종교 현상은 모두 뇌의 기계적 작용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영적인 경험을 뇌신경의 화학작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계산기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계산 능력이 있으나 수를 개념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사과에 대해 ‘챗 GPT’에게 질문하면 멋진 대답을 얻을 수 있으나, 그 대답은 수없이 많은 가상 공간의 정보를 취합하여 질문한 사람의 의도대로 문장을 만든 것이지 사과를 직접 맛본 사람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간 영혼 문제가 정리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질적인 차이가 완전히 극복되는 임계점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스물여덟 살에 독일의 본(Bonn) 대학교 석좌 교수가 되었다 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나는 뇌가 아니다』(Ich ist nicht Gehirn)에서 인간을 뇌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연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종교는 뇌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미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연 과학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과 세상은 자연과학만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사실만 reality가 아니라 신학적인 사실도 reality라는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의견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4)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경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확증된다는 그리스도교 신앙 말입니다. 이런 신앙은 인격이 고상하거나 교양이 높아진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증언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거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천 년 예배 전통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령이여, 오소서”(Veni Sancte Spiritus!)

##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3년 6월25일

성령강림 후 4주

세계 교회력 「가」해 31주



능소화다. 정 목사 주택 바로 옆에 10년도 훨씬 넘는 폐가가 있다. 4~5년 전 양쪽 집 경계에 심은 능소화가 지금은 크게 자라서 무더기로 꽃을 피운다. 무슨 꽃이든 활짝 피었을 때만이 아니라 피기 직전 모습도 아름다운 법이다. (6월 22일 오전에 찍은 사진)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공부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 개 회 예 전

### 예배의 부름 ... 목사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중심으로 삼는 주일 공동예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1, 2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현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에게 의해서 예측되거나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걸든 탓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둬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찾아오게 될 죽음과 그 이후에 이르는 우리의 운명 전체가 하나님의 영에 완벽히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영광송) ... 다 함께



## [ 알리는 말씀 ]

\* 예배 후 데칼로그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다음주 (7월 2일) 예배 후에 전교우 식사가 있습니다.

장소 : 어수지락

\* 6.25- 오늘은 한국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언제, 어떻게 한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기도 제목입니다.

\* 지난주일(6월 18일) 헌금: 210,000원(주일헌금 130,000원, 통장헌금 8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7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7월 2일	정용섭목사	윤혜정집사 최선아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박정덕 /시청각실
7월 9일	이춘우목사	윤혜정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오미영 /시청각실
7월 16일	박재진목사	박수진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김희란 /아트컬리지5
7월 23일	김동호목사	이기령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이유선 /시청각실
7월 30일	박재진목사	이유선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윤혜정,윤영위 /아트컬리지5

## 지난 주일(6월 18일) 설교 발췌

제목: 성령과 하나님 사랑 (롬 5:1~8)

1)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3) 숭고한 자기희생이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사랑 없이도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명예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고전 13:2절에서 예언과 비밀스러운 지식과 산을 옮길만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끊어서 말했습니다. 사랑은 온전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관통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3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 후 넷째 주일의 공동예배를 마쳤으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는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잠시 흔들리기는 하겠으나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공동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살지 못하고 공연한 일로 허둥했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필요 없는 말은 많았으나 필요한 말에서는 인색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린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개인 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 선포

목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Sondra Corbett

경배하리 주 하나님 - 전능하신 주 경  
I wor-ship You, Al-migh-ty God, - there is none like You.

배하리 평화의 왕 - 주를 사랑 합 니 다 찬  
wor-ship You, O Prince of peace, - that is what I love to do. I

양 하 세 - 누가 주와 같 으 리 - 경  
give You praise, - for You are my right-eous-ness. I

배하리 주 하나님 - 전능하신 주  
wor-ship You, Al-migh-ty God, - there is none like You.

출 15:11

##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창세기 21:8~21 ... 김용성 집사

성시교독 시편 86:1~10, 16~17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주여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내몸은 가련하고 불쌍한몸 아닙니다  
-주님에게 바친이몸 묵숨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주님 이몸건져 주옵소서  
종일토록 주님향해 전심전력 기도하니 주님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제가 진심으로 주님만을 우러르니 저의영혼 기쁨으로 가득채워 주옵소서  
우리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심 가득한분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모두 돌보시네  
-주님저의 간구기도 귀기울여 주옵시고 애원하는 목소리를 부디들어 주옵소서  
우리주님 틀림없이 응답하실 분이기에 고난고초 당할때에 주께애원 하나이다  
-온갖우상 가운데서 어떤신이 주같이 우리주님 하신일을 어떤신이 하리까  
주님께서 손수지은 민족들이 모두나와 오직주께 경배하며 영광돌려 비나이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놀라운일 하시오니 주님만이 오직홀로 하나님이 되옵니다  
주님이몸 돌아보사 불쌍하게 여기소서 부디제게 한이없는 주님은혜 베푸소서  
-은총징표 보여주어 원수집을 먹게하고 주님저를 위로하사 담대하게 하옵소서

둘째말씀 로마서 6:1(후)~11 ... 김용성 집사

\*셋째말씀 마태복음 10:24~39 ... 김용성 집사

\*응답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설교 두려워하지 말라! ... 김동호 목사

설교후 기도 ... 목사

찬송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러) ... 다 함께